
기획논문

동서양 유덕자의 초상

오늘날 서구윤리학계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통의, 덕(德)에 기초를 둔 윤리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그것은 칸트의 윤리학이나 공리주의가 대표하는 현대윤리학이 갖는 몇 가지 난점을 ‘덕윤리’(德倫理)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가령 덕윤리는 도덕원리를 정당화하는 문제에서 보다 유리하며, 의무감이나 최대다수의 행복과 관련 없는 나 자신의 행복이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에서도 보다 탁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대윤리는 계몽주의적 기획의 산물이다. 근대문명의 세계화를 꿈꿨던 유럽인들은 추상적 거대 공동체에서 적용될 윤리를 필요로 했으며, 그리하여 이성을 가진 자율적인 개인의 탄생을 요구했다. 현대에 덕윤리의 효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대문명이 만들어낸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자율적 주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무대를 벗어난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덕윤리의 도입을 촉구한다.

그러나 도덕적 감수성이 통용되는 한정된 공동체 안에서 작동했던 덕윤리가 근대의 윤리가 될 수 없었던 약점을 여전히 덕 윤리는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덕윤리의 현대적 의미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덕윤리와 현대윤리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려 한다. 따라서 덕윤리가 현대윤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찾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동서양 유덕자의 초상’이라는 주제 하에, 동양과 서양, 고대와 근대라는 연구영역을 달리하는 네 사람의 철학전공자는 위의 문제의식에서 각각 덕에 관해 중요한 논의를 전개한 역사적 인물들을 다뤘다. 덕윤리는 ‘바람직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기를 윤리적 과제로 설정하므로, 그러한 사람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일은 가장 쉽게 그리고 단적으로 그 ‘덕’을 보여주는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

송유래의 『거룩한 철학자의 초상 - 포르피리오스의 『플로티누스의 생애』를 중심으로』는 덕윤리가 갖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즉 덕윤리는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되기를 꿈꾸는 바, 윤리적 이상주의를 취한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신에 가까워지고 나아가 신과 같이 되는 일이며, 이 목적을 위해 덕이 요구된다. 인간은 덕을 통해 신을 닮고 덕에 의해 신을 보고 드디어는 신과 하나가 된다. 포르피리오스는 신으로 이끄는 덕의 여러 단계에 따라 한 거룩한 철학자의 인생을 묘사한다. 관조의 덕, 즉 지혜를 통해 인간은 덕을 완성하게 되고 마침내 좋음 자체인 최고신에 이른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과 학습을 통해 달성되므로, 이상적인 유덕자는 배우고 익힘을 통해 지혜를 지니게 된 현자이며 지혜를 통해 거룩하게 된 성인(聖人)이다.

김경희의 『『장자』에 나타난 민(民)의 덕(德)과 정치역량 - 외편의 『변무』 등 4편을 중심으로』는 플로티누스와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대, 중국에서의 논의를 다뤘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덕은 플로티누스 경우와 같이 윤리적 이상주의가 갖는 엘리트주의 혹은 영웅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덕이다. 단일저자에 의해 집필되었으리라 추측되는 『장자』 외편의 이 네 편은 성인과 함께 출현한 통치제도와 위계질서에 강한 반감을 표현하며, 소수의 탁월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민(民)이 갖는 본성의 힘으로서 덕에 대해 사유한다. 플로티누스는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수련에 의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수에게만 허용된 특권이 아니라고 역설하지만, 가능성은 그러할지언정 그러한 덕은 실제로는 언제나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탁월함이다. 『변무』 등 네 편의 저자는 유가의 인의(仁義)의 덕 역시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희생시켜 명리를 얻으려는 자들의 규범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저자가 주장하는 덕이란 자신의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민의 덕이 생존욕구로서의 본성 발현뿐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언어의 주체로서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저술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정치역량으로 덕을 사유했다.

박기순의 『스피노자의 유덕자, 자유인- 자유와 합리성의 계보학적 재구성』은 스피노자가 자신의 시대에 앞섰던 두 철학적 전통, 즉 고대 그리스의 목적론 전통과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주의주의 신학 전통에 대한 이중적 비판 혹은 비판적 종합을 통해 어떻게 전통적인 덕 개념을 새롭게 정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스피노자는 덕 혹은 유덕자 개념은 어떤 인간 본성 모델의 설정이며 이 모델은 합리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 점에서 고대 덕윤리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하면서 그 모델을 도출하는 것은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그 모델은 욕망의 인간학에 기초해서, 즉 인간 본성을 규정하는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합리성의 계보학적 재구성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 스피노자의 덕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근대적 전환을 이루게 되며, 이것은 이후 니체에 의해서 계승된다. 다른 한편, 그는 이 욕망을 정신의 고유한 힘인 자유의지로 환원하면서 덕윤리를 규칙 윤리로 대체하고 있는 근대의 윤리적 전통과도 갈라선다. 왜냐하면 그에게 자유는 합리성에 기초해 있는 한에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경의 『황중희의 유덕자 - 함께 만드는 사회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

람』은 스피노자와 동시대이면서 지구반대편에 살았던 17세기 중국의 황중희가 전개했던 덕이론에 관한 것이다. 황중희는 마음의 힘을 신뢰하는 양명학의 전통을 이어받는 한편에서, 기일원(氣一元)의 존재론을 전개한다. 기의 존재인 인간은 기 전체의 흐름인 세계와 연동되어 움직인다. 선을 감각하는 능력을 갖는 마음 역시 기로서, 과불급(過不及)의 운동을 하며 흔들린다. 그리하여 불완전한 개인은 사회 속에서 서로를 보정하고 견제하며 덕을 키워가야 한다. 따라서 덕이 성장하는 환경이 될 좋은 사회와 제도를 만드는 일은 윤리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과제가 된다. 황중희는 인간본성의 선함과 기적인 존재의 불완전함을 동시에 포착한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장해가는 공동체를 구상하였다.

이들 상이한 장소와 시대에 전개된 덕이론들을 통해 덕에 대한 사유가 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만이 아니며 그 내부에서의 비판과 발전을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덕윤리가 현대윤리에 대한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 삶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윤리학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까지 오랜 역사에 걸쳐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개된 덕 개념과 덕 이론들을 발굴하여, 현대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재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특집을 함께 한 네 사람은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려고 하며, 우리의 이 첫 번째 논문 묶음이 덕윤리학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또 외연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